

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

생명의은인인권 닥터를볼 수가 있어서너무 감사합니다

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 #### 2018년 구정이 다가오는 날... 도시는 벌써 설날 기분으로 철문을 내리고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 했습니다. 설날 전에 중국인들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습관 중의 하나가 설날 앞, 뒤 15일 간격으로는 병원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 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면 1년 내내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좋은(?)관습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오지 않아서 닥터에게는 설날 7일전부터 휴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저 또한 출근해서 설날 보너스 받은 기분으로 그 동안 밀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정리 하다가 나온 사진 한 장..... 2016년 초가을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 사진은 잔잔한 미소를 만들어 주었던 추억이 떠오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이야기는 2014년으로 올라갑니다. 한국 평택에서 농부로써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닭들과 놀기도 하고 실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e-메일의 시작으로 쉐이시(서안에서 4시간 떨어진

북쪽은 작은 시)에 물 과량새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어지요. 직원용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밥을받기

< 권 닥터.....내 친한 친구가 말기 암이라고 결과가 나와서 급하게 권 닥터를 만나러 노동자 병원에 갔더니, 한국에 돌아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연락해서 간신히 메일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메일 받는 대로 전화를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2014년 당시에는 한국에 영구 귀국을 하고자 한국 평택에서 귀농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로는 포기하고 돌아와 있지만.....그때에는 처음 해보는 귀농 교육 일이라서 농장 일들을 마치고 들어오면 온몸이 지쳐서 메일 확인도 못하고 바로 잠을 자기 때문에 들어온 메일을 몇 일 늦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

메일을 확인한 그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바로 중국 경찰 공무원인 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화 형님.....잘 지내시었죠. 메일을 이제 확인 해서 지금 전화를 드립니다.” “미안하네. 휴가 받고 한국으로 나갔는데, 귀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휴가요.....땀 엄청 흘리면서 중 노동하고 있습니다” “.....” “.....”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면 말씀을 드리고요. 말았습니다(사실 중국 생활 했다는 이야기와 어떤 복잡한 암이기에, 한국에 저를 찾습니까?) 귀농실습을 하는 중 이었습니다)저는 자연스럽게 화 사람들이 듣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고 한 손에는 밥을 “암환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의무, 책임성이 너무 강해서 오는 스트레스 입니다” “아~~~~~” “그리고 술과 담배 하냐요?” “술 고래 그리고 담배는 염소처럼 입에 물고 다니네” “그러면 당장 술과 담배를 끊고 면 종류 식사를 모두 금지 할 수 있나요?” “술 담배는 암 진단 받고 바로 끊었고.....면...우리 서북에 사는 사람들의 주식은 면인데.....” “면을 끊지 못하시면 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화 형님이 후 국장과 의논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음식조절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결정 후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농장에 전화기는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결정 후 전화 해주세요”화를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농장

물어봤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중국어로 전화 받아요?” “간암 환자라서요”
 “간암 ! 권 형이 그러면 의사야!” “………….” 잠시 식당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을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귀농교육을 받고, 닭 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으니……보통 한국인 입장으로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저를 쳐다보는 동료들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술을 거하게 쏘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저녁 8시에 이곳에
 오시면 막걸리와 소주 한잔 하면서 회포나 풀어 봅시다” 그날 이후로 농장에서 신기한
 사람으로 통하면서 1년간 평택농장에서 닭들과 놀면서 자연과 보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생각들을 다듬어가던 시간들 이었습니다.

(귀농교육을 하던 농장 전경과 닭 농장)

식사 후 QQ(중국에 카톡 전 단계에 문자 채팅 방식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를 열어서
 개인 채팅을 시작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의 후주평 입니다. 직업은 아실
 것이지요> <그 동안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드시고 있던 약이 있었나요?”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 부터 간 검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가 많아서…………..) <이해 됩니다……………..중국의 일이
 책상보다 밥상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하하하하> “하하하하….한국 분인데
 중국 전문가라고 화형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년간 간과 췌장에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연장을 쓰라고 하는데……정말 방법이
 없나요 ? > <현재 결과에서는……………그렇다고 손을 놓고 하늘나라에 갈수는 없지요.
 생명의 소중함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방법을 제안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상태라면

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유언장을 쓰던 수백, 수 천명이 건강을 찾아서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
<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글을 쓰는 것 입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했던 일, 그리고 용서 해야 될 일과 용서 바라는 마음을 글로 써서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 입니다. 글을 쓰고 있을 때면 아마……..엄청난 눈물이 흐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 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후~~~~~꼭 해야 된다면 꼭 하겠습니다> <2번째는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것 3가지만 적어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으시고 꼭….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후 선생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지고 있으면 저랑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적어놓아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인데요………….>
<경찰이라면 공산당원인데…….신앙 생활 해보라는 것이……” <저의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있어서 저도 가끔 절에 갑니다. 중국 법에 종교같은 것에는 불법은 아닙니다>
<아~그래요………….그러면 제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면역학은 3가지 논리가 일치되어야 암 치료가 잘 됩니다. 영-정신-육체 입니다. 육체 면역학은 약물치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면역학은 기쁨과 행복, 긍정심,….이런 종류 입니다. 그리고 영적 면역학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무게에 영혼이 0.28g 해당된다는 학설도 있지만, 신기하게 뇌에 있는 영이라는 영역에서는 많은 면역계통을 좌우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와 무 종교론을 갖는 사람들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자율신경 쪽으로도 많은 부분이 부교감신경으로 면역활동이 자유스럽게 되어 치료율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작용하는 물리 작용을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을 그대로 하셔야 1달에서 생명이 3달로…….그리고 반년……다시 1년으로 연장되면서 세포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암과 동행을 시작을 하는 것 입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먹으면 우리들의 세포가 쓰레기가 됩니다. 암세포는 바이러스와 균 그리고 중금속, 농약, 환경호르몬으로 인하여 발생한 염증들이 DNA 변화를 주어서 불멸의 암 세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암세포는 저 체온과 저 산소의 특징 속에서 생존해 있습니다. 암세포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후 국장”의 잘못된 습관에 의하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100% 변화된 삶”을 만들지 않으면 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3가지부터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1. 고기 단백질 종류, 우유 관계되는 종류, 밀가루 모든 음식, 식품회사 마크가 있는 모든 제품, 조미료, 식당 음식, 탄산음료, 술, 담배……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 무과당이라고 포장된 모든 식품종류. 콩, 유채, 해바라기 기름과 GMO가 첨가되어진 모든 식품 2. 장과 간의 독성을 빼기 위하여 커피관장을 1일 3~4회. 단 이때 녹 즙을 3~4회 짜서 복용을 하면서 진행 한다. 3. 우리의 몸은 70%는 물, 혈액의 80%는 물……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시작한 곳도 양수라는 물……그러기에 좋은 물을 일일 2000~3000CC를 의무적 복용을 한다. 단

이러한 물건은 한국의 김형원교수님이 개발한 “유엠” 정보 물 외에는 없기에 이것을 구입해서 1000cc물에 유엠을 4개 넣어서 일일 많이 드실수록 좋다 > <모두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엠은 어떻게 구입을 하죠?> <제가 한국에 있으니 중국으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에서 추가해야 될 것 입니다.

앞으로 면, 밀가루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탄수화물은 20%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중심의 식사로 80%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기름이 0.1%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 허용되는 기름은 올리브와 참기름, 아마 기름만 가능합니다. 단 볶음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밥에는 흰쌀 10% 수수가 30%, 검은 쌀 20% 검은콩 30% 그리고 나머지 잡곡으로 하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면에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 비누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면문제는 고대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후~~거의 산적 분위기 되어서 집에서 못나겠습니다……..> <산적이요?> <제가 덩치가 크고, 털이 많은데…….거의 고릴라 분위기 입니다> 저의 후 국장님의 말에 그만 빵~터지면서 웃음이 나왔다. 보통 공안국 국장이 되는 분들은 덩치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털이 많으니…….몇일만 손질을 안 하면 거의 산적 분위기 연출 되는데……..공안국 국장이 산적이 되니……그런 그림을 머리에 그려내니 너무 웃겨서 큰 소리로 계속 웃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책을 보던 동료가 저를 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무슨 일 있나?” “아니네……자네는 내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네” “지금 무엇 하는 것인데?” “중국에 환자와 암 치료 건을 상담 중이라네….” “요즘 농장에서 자네에 대하여 이야기 돌아다니 것 알고 있나?” “무슨 이야기” “별종이래……그리고……이상한 사람이래” “내가 뭐가가

“하하하하…….몇 년이 흐르게 되면 알 것이네……. 조금만 일 마무리하고 자겠으니 조금 불편해도 참아 주시게나~~” 이런 시간들이 쉼이시에 물 파랑새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이시 인민병원에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후 국장은 자연스럽게 저와 토론과 상담이 길어졌고 일단은 직장에 휴직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아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후 국장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언장” 작성 후 국장님은 저의 제안으로 가족들 앞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낭송되어진 유언장 앞에서 가족들은 흐르는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용서해주고, 용서 받았다고 합니다. 후 국장은 그 속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과도 이런 이별 아닌 이별을 했고, 이 소문이 작은 쉼이시에 퍼지면서 후 국장에게 응원하는 메시지와 전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후 국장에게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주는 사건으로 변화 되어졌습니다. 지난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감옥에 넣었던 죄인들 집에 방문하여 가족 보살핌으로 사랑과 관심이 이어져서 산서성 TV 방송까지 출연하는 일명 동네 “스타”까지 연결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치료가 시작되어 10일 되어가면서 후 국장의 몸은 안 좋아지기 시작 했습니다. 극한상황으로 가는 것을 애타게 바라보던 가족들은 저에게 QQ 통신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후 국장님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생각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간에 복수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응급실에 들어가 알부민 처방과 여러 처방전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들을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를 많이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식초에 초산균들이 직접

커피관장 그리고 식초요법, 그리고 아침마다 녹즙을 통하여 진행하는 진료방법과
영양제 방법을 통하여 간에 무리 안가는 방법에서 중점을 두고 시작 했습니다

정보유एम물을 2000~3000ml를 복용을 한다 1일 4회 공복에 녹즙 (브로콜리새싹,
당근,양배추,샐러리.)을 150cc 복용 커피관장 일일900cc 기준으로 1일 3회
실리마린과 셀레늄을 알약으로 복용하고 비타민b12.b6.b1. 비타민d는 주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 시켜 준다. 산을 등반하는 것으로 일일 2시간씩
강행군 중약을 처방으로 일일2회 복용 (반지련,산두근,전과루,백화사설초,황기 각 30g
포공용,사삼,포산갑 각15g 생감초 12g) 정보카드와 공간카드를 전기제품과 침대, 옷에
수없이 많이 설치 전기정화 장치까지 설치하여 공간자체를 에너지 장으로 바꿈 30일
지나가면서 암이 더 이상 후 국장을 최악으로 끌고 가지는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주었습니다. 90kg가 육박하던 후 국장의 체중은 20kg가 빠지면서 오히려 혈당이
안정이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후 국장님….당뇨환자의 23%정도
암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정말인가요?> < 암 또한 만성질환으로
혈액이 탁하고 혈류가 천천히 흐르게 되면 세포에 저 체온과 저 산소로 인하여 암세포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지요.> <일단 죽기 전에 인술린 맞던 당뇨 병은 고쳐서 감사하네요>
<하하하하…….아주 긍정적이라서 좋습니다. 혈당만이라도 내린 것이 면역력
회복에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비타민b17을 하루건너 9g을 정맥주사로
진행 하고 하루는 비타민 고용량 C 으로 일일 8G부터 시작하여 주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간이 무리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간에 무리, 안 무리가 어디
있나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사를 떠나서 하루 하루를 보너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방법이라도 받을 것이니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제안을

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저에게 이런 관심을 써주신 것만이라도 저와 가족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제가 금지한 음식을 철저히 지켜주시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가버섯-러시아산을 구입해서 82도까지 끓인 후 서서히 1시간 식혀서 매일 400~500cc를 복용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나오는 것은 효능이 없습니다. 꼭. 러시아산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지는 한반도의 날씨는 마음의 포근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평택농장에서 낙엽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서 산책을 하면서 보내고 있던 곳에도 이제는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 국장과 인연이 되어진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2달 동안 암과 줄다리기는 긴장의 연속을 달리고 있었지만 후 국장님만 천하태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성격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 권 닥터는 언제 중국에 들어오나요?> <사실 아직 생각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 11년만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어렵네요. 같은 한국사람인데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물 접근하는 방식이 저와 많이 틀린 것 같아서 농장 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하하하하...이제 반은 중국사람이 되었으니 중국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어떤지요?> <하하하하하...그래도 태어난 조국이 좋습니다> 참으로 암이라는 것이 요상한 것 같습니다. 자연 존재하는 식물들과 동일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 되어지면 모든 곡식과 채소 그리고 나무들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매를 만들어 가듯이 암 세포도 죽으려고 하면 꼭 다른 곳으로 뛰어나는 (전이 형태, 또는 확산 현상)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간혹 치료를 받다가 닥터를 의심하거나 불안한 감정으로 의사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간 관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 닥터의 세계에서는 환자들과 감성교류 또는 매뉴얼에 없는 치료방법을 제안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생각했던.....암의 전이가 3개월만에 일어났습니다. 위로 전이 소견이 나왔습니다. <후 국장님 걱정 않 됩니까?> <왜.....걱정이 않 됩니까?저 또한 인간이기에 죽기 싫죠. 그러나 이것도 저의 운명이라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참 내~~~도인 다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하루 하루 그냥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 도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고요. 일단 소견서 근거하여 아래 내용으로 치료방법을 추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조하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소멸되기 전에 CT에서 암세포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도 있지요. 즉 이런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전이”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너무 낙심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치료하고 하루 하루 소중히 살아가봐요)<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정보 물에 요오드 15방울 떨어드려서 오전, 오후 공복에 복용을 한다 식후에 염증을 제거하고 음식물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세균을 위하여 “은”물을 100ml를 3회에 걸쳐 복용- 은 물 생성 기계는 미국제품으로 추천(당시에는 한국제품이 없었습니다) 과산화수소 요법으로 45일간 진행을 한다. 구입하는 방법과 진행방법은 별도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식용 과산화수소를 복용 할 때는 앞, 뒤 한 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다른 약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물은 정보물을 꼭 이용을 한다. 아침 즈에 민들레(한의학에서는 포공영)을 구입해서 즈으로 내서 추가하고, 쑥과 민들레를 하루 건너 바꾸면서 즈으로 복용. 비파 잎으로 우려낸 물을

염증제거와 항산화 작용에 매우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파란색을 띄고 있던 들판이 노란 황금색으로 익어가던 초 가을. 평택의 가을 들판은 옆으로는 작은 강줄기와 어울려서 환상적인 저녁 노을을 만들어서 저는 자주 강둑을 걸으면서 논을 보면서 자연에 생명력을 마음에 담아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음속에 아름다운 가을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우……화 일세” “화 형님…무슨 일인데, 한국까지 전화하고….국제요금 많이 나옵니다” “하하하하……후 아우에게 이야기를 들었네….고맙네” “들었군요….저도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하하하……겸손하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자네는 우리 중국인에게 생명의 은인이며 자랑스러운 친구이네……” “참…낯 간지럽게 칭찬을…” “무슨 소리인가…….쉐이시에서 포기한 간암 말기 환자를 6개월만에 암의 크기를 깨알만큼 줄여 놓았는데……” “참…깨알보다는 커요……” “하하하하……여하튼 감사하고 고맙네……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제가 볼 때 지금 치료방법이 후 국장님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중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후국장 잘 부탁하네” “중국에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요…….” “중국에 들어오면 꼭 쉐이시에게 오게나……” “알겠습니다” 12월25일 성탄절 이틀을 남겨놓고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온통 덮여지고 하늘이 아름답게 수채화로 그려지는 농장을 우산을 들고 아무도 걸어간 적 없는 길을 걸어 갔습니다. 뒤 돌아 보아도 걸어온 발자국은 한 사람이지만 나를 업어주고 가는 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이 그리 외롭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눈은……아픈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새하얀 눈으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침묵으로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주는 따스함으로 대지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결국 저는 농부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

국장과 화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인 권 닥터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적보다는 잘 생겼는데요….” “하하하하하” “저는 2016년에 복직을 합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권 닥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광 팬이 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저는 연애인이 아닙니다” “2016년 제가 복직 되어지는 저의 췌이지 공안국에 방문하여 저의 경찰동료들 전체검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병원이 있는데…굳이 저의 병원에서………….” “하하하하…………그래도 제가 정식 초청하는 것 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새롭게 부임한 병원에 체면을 세워주고, 병원 매출을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봄에 췌이시에 방문을 하여 “의료 활동”을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췌이시 공안국에 의료활동하고 남긴 기념 사진 입니다)

댓글5

최윤태(서울)18.05.19 15:30 오랫동안 들러 선생님 글 잘 읽고 갑니다. 늘 감동적인 글 감사합니다. 박정원(서울)18.05.19 21:43 선생님의 글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시금 다잡 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쭙어봅니다 설탕, 밀가루 등은 먹지 않는게 좋은지는 알고있 는데요 설탕 대체로 중국에서 70~80%이상 생산되는 나한과가 100% 주원료인 설탕맛과 유사한 천연감미료. 모그리톨이라고 있는데 이걸 먹어도 될까요? 가급적 먹지 않는 조 리법으로 음식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써봐도 될까 싶을때가 있어 여쭙어봅니다 김영애(부산)18.05.25 18:03 올려주신 글들에서 참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간단한 댓글에 달기가 뭣하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 이병준(중국)19.03.14 19:44 감동이네요. 저도 중국에 있지만, 정말 대단하세요

